

자연경관과 시설투자

Natural Spectacle and Establish Investment



글 / 金 鎮 源
(Kim, Jin Won)

지질및지반기술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E-mail : kjw5738@yaho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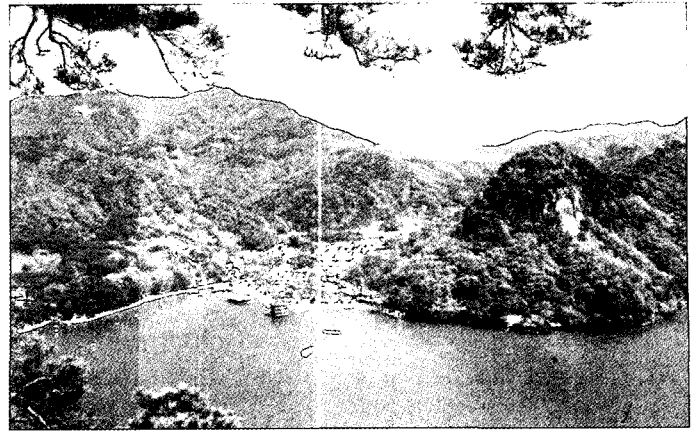
Tourist Facility investment at famous natural spectacle area in Korea that should be the best for the environment preservation not only destroy but also guarantee for environment.

중국의 장가계는 후난성에 있으며 기온이 아열대성 기후로서 습윤하다. 양자강유역의 원시적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그 웅장하고 수려하며 험준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자연산악경관지대이다.

기이한 산봉우리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경치가 대단하고 호수와 동굴이 천하제일·세계제일 산으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따를 수 없다. 산을 좋아하는 등산인은 누구나 이곳을 보면 좋아할 것은 물론이고, 와! 와! 하고 탄복·탄성 아니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약 3억8천만 년 전 이곳은 망망한 바다였으나, 후에 지구의 지각운동으로 해저가 육지로 솟아올랐다고 한다. 국내외에서 보기 드물게 원시상태에 가까운 아열대경치와 생물형태환경을 지니고 있다. 억만년의 침수와 자연붕괴 등의 자연적 영향으로 오늘 같은 깊은 협곡과 기이한 봉우리, 물 맑은 계곡의 자연절경이 이루어졌다.

수직절리(垂直節理 ; 암부의 절리면 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것)를 이루고 있어 협곡의 최상부는 위험한 상태이며, 절벽상부에서 수직 약 300m를 내려다 볼 수 있고, 겨우 두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작은 길(小路)을 만들어놓은 대단히 위험한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렇게 길게 되어있는 경관을 볼 수 있게 공사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겠지만 사암지대이므로,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지반이 잘 붙어 있어야 하므로 안전진단이 꾸준히 점검되어야 한다.

홍콩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하였다. 자본사업가가 투자케 하여 천자산 구름 위의 산을 짧은 시간에 오르게 하였다. 위험한 공사인 케이블카(Cable Car)를 설치하여 구름 위의 산을 올라가게 하였으니, 신선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케이블카설치비는 홍콩이 투자케 하고, 케이블카 설치기술은 독일이 시공한 것으로 그 관광수입은 대단한 것이다. 원가계는 산 정상에 협곡정상을 따라서 두 사람이 겨우 서로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길을 절벽에 시공하여, 절경



산정호수 전경

을 볼 수 있게 만든 대단한 공사이다. 사진기로 그 절경을 잡을 수가 없는데, 워낙이 장관이고 그 무대가 크므로 촬영이 안 되며, 비디오촬영을 하여도 구름안개가 너무 많고, 구름안개가 고속으로 이동을 계속하므로 촬영이 잘 안되어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이 어렵다.

또한 백룡엘리베이터는 원가계의 정상에서 수직적으로 335m를 하산하는데, 대형엘리베이터 3대를 설치 시공한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171m절벽에 앵커(anchor ; 어떤 설치물을 튼튼히 정착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를 부착 고정시키는 공법으로 산체에 레일(rail)을 부착시키고, 수직강철구조물로서 엘리베이터식으로 권양기를 절벽하부에 설치하여 관광객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한다. 절벽하부에는 암반 153m를 굴착하여 수직갱을 시공하여 엘리베이터가 그곳을 통과 하강케 시설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려오면서 창문 밖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되어있다.

한국의 명산이나 미국의 그랜드캐년도 이러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짧은 시간밖에 없는 관광객들에게 등산할 시간은 없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모노레일 시설함에 있어 환경파괴라는 사유로 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환경을 복구하면서 한국의 명산, 서울 부근 산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게 시설 투자케 하여, 장가계보다는 못하더라도 등산 대신 할 수 있게 설치를 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정의 호수, 해발 430m 위에 있는 수심은 72m이고 폭이 제일 넓은 곳은 150m인 산정호수를 인공으로 시설 투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산 정상에 댐을 만들어서 걸으려는 잘 알 수 없게 하였고, 수문을 만들어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강수량이 너무 많으면 여수로를 별도로 흐르게 자연수로를 만들었다. 그 여수로 옆길로 흐르는 물을 볼 수 있게 인도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걸어서 오르게 시설하였다. 일부 구간에는 수위 밑에 암벽을 터널식으로 굴착하여 다른 편에 절벽으로 물이 떨어지게 시공하여 자연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게 한 것은 지혜이다. 천연폭포수같이 만들어 풍경을 만든 것은 시설투자에 의한 관광수입이다.

호수에는 배 위에 기와지붕을 씌워서, 비가 와도 비에 젖지 않도록 하여 집이 호수 위에 운치 있게 떠다니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두꺼비바위, 선녀바위 등이 장관이며 배를 타고 가다보면 구석의 안개 낀 선녀바위에서 아가씨가 나타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환상적이다. 비가 오는 호수의 낭만은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적인 것이다.

한국도 자연경관이 훌륭한 곳에 관광개발과 시설투자를 하면 환경보존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될 것이며, 환경파괴만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차원에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원고 접수일 2006년 6월 20일)